



**평택시 비전2동 새마을회  
어르신 효도관광 “즐거웠어요”**

새마을 남녀지도자 비전2동협의회(협의회장 박영수, 부녀 회장 임하진)에서는 지난 3일 지역 내 어르신 50명을 모시고 인천 월미도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이날 어르신들은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어시장을 둘러보고 횃집에서 회정식으로 꾸집한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순용 노인회장은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새마을에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비전2동 새마을회 박영수·임하진 회장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날 행사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새마을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미라 기자  
mamui@hanmail.net



**중앙동 새마을 남녀 지도자  
이웃돕기 기금 마련 사랑의 바자회**

중앙동 새마을 남녀 지도자는 6월 2일 중앙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는 오전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며 참기름, 미역, 다시마, 젓갈 등과 국수, 부침개 등의 먹거리를 판매했고, 지역 유관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300여 명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명절 송편 만들기, 김장철 김장 나눔 등을 한 해 동안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행사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바자회를 주관한 새마을 남녀 지도자 이삼식, 천강자 회장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행사 취지를 이해하고 바자회를 찾아주신 많은 주민들과 행사 준비에 도움을 주신 유관 단체 회원들과 중앙동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병국 중앙동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 나눔 봉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미라 기자mamui@hanmail.net



**신장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애국심 고취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신장1동 위원회는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1일 태극기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K-55 부대 정문 앞에서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들과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관계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주변 신장 쇼핑몰을 중심으로 골목길을 순회하며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벌였다.

쇼핑몰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용 태극기를 직접 나눠주었으며 직접 태극기 꽃이를 설치해 주며 현충일에 꼭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홍보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신장1동 위원회 최대니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라사랑과 더불어 태극기 사랑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신장1동 김경숙 동장은 “이번 현충일에는 태극기달기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미라 기자mamui@hanmail.net

**현덕면 청심회 효도잔치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 ‘활짝’**

현덕면 청심회(회장 유응석)는 6월 3일 평택호 한국소리터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000여명을 모시고 효도잔치를 풍성하게

마련해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게 했으며 큰 즐거움이 되도록 했다.

청심회는 1980년부터 제1회 경로잔치를 시작해 격년으로 매년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을 실시 2017년 2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청심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로잔치와 효도관광을 격년 주기로 매년 지속추진 할 것이며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날이니 즐겁게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며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했다.

정흥덕 현덕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효

도잔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청심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지역의 화합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미라 기자 mamui@hanmail.net

